

# 시립예술단 또 분란... 노조 평정 거부 비난 목소리

## 광주시 21일부터 실시... "불참시 불이익" 노조 "평가방식 개선 없어 참여 않겠다"



타악그룹 열쑤 '인수화풍'

### '인수화풍' '사평역' '자매부'

#### '페스티벌 오! 광주' 참가작 선정

5월 개최되는 2013년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 무대에 설 지역 작품 3편이 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민간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브랜드공연축제 작품을 공모한 결과 8개 작품 중 타악그룹 열쑤(대표 김양군)의 '인수화풍', 푸른연극마을(대표 오성완)의 '사평역', 김미선 무용단(대표 김미선)의 '자매부'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사평역'은 서민들의 애환을 간이역이라는 공간을 통해 보여주는 작품으로, 2010년 광주연극제에서 대상, 연출상, 무대미술상,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

'인수화풍'은 자연의 거대한 순환을 소재로 한 타악 퍼포먼스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명의 호흡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해 그림과 모듬북 등 다양한 창작악기로 표현한다. '자매부'는 김미선 Sun Dance Project의 강렬하고 독창적인 무용극으로, 지난해 전국무용제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 대통령상·인무상·연기상을 휩쓸었다.

이들 작품은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브랜드공연축제에 공식 참가하며, 작품당 1500만원씩 지원된다.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푸른연극마을 '사평역'

광주시립예술단체 노조가 정기평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시립예술단체 설립 후 처음으로 과업 때문에 정기 공연을 취소,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이번에는 시립예술단체들이 조례로 규정돼 있는 정기평정을 받지 않겠다고 나섰다.

19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 분야 2012년 정기 평정이 예정돼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정기평정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조가 연기를 요구, 21일부터 평정을 실시하게 된다.

정기 평정은 근무평가(30%·이중 예술감독 점수 20%)와 실기평가(70%)로 이뤄지며 올해 평정 대상자는 6개 단체 263명. 이 중에서 21일부터 열리는 실기 평정을 받아야 할 단원은 모두 239명이며 교향악단이 가장 많다. 노조원은 약 180여명이다.

평정 일정은 21일 국극단의 관소리 가야금 병창 부문을 시작으로 국극단 무용·타악(22일), 무용단·합창단(26일), 교향악단 현악(27일) 등이며 마지막 날인 28일 교향악단 관악·시립소년소녀합창단·합창단이 평정을 받는다.

문화재단은 2011년과 같은 방식으로 평정을 실시하되 지난 14일 시립예술단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에 따라 전행위원장 일정 비율을 노조측 추천 인사로 채워 평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정기평정 전행위원은 4~1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회관측은 올해의 경우 모두 7명으로 전행위원을 구성하고 이중 노조 추천위원 2명을 할당할 예정이다. 또 점수제 대신, '적격', '부적격'으로 평가했던 교향악단의 평정 방법도 모두 점수제로 통일하고 전형도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평가는 최고 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5명의 점수를 합산, 평균점수를 내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립예술단 노조는 지난해 법정까지 갔던 광주시향 사태에서 보듯 현재 평정 제도에 문제가 많으며 평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또 시립예술단체 총단장을 맡고 있는 행정부시장이 '5% 탈락설' 등을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떠돌면서 분위기도 악화되고 있다.

노조측은 이전 협상 파트너였던 전임 문화재단장과 ▲근무평정 중 예술감독 점수 하향 조정 ▲2년마다 정기 평정 실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전행위원으로 노조측 추천위원을 할당하는 등 달라진 정기평정 방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이미 체결해 놓고 뒤늦게 평정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



시립예술단이 21일부터 예정된 정기평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립국극단.

며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평정 거부에 대해 단원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비노조원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평정을 치를 예정이지만 일부 노조원들 가운데서는 오디션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화재단은 18일 관장 명의로 낸 '광주시립예술단 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이번 평정을 앞두고 5% 탈락설 등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정기평정은 공개원칙과 점수제 평가로 객관성과 공정성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전행위원들간의 담합, 근거가 부족한 근무평정 점수 등 지난해 문제를 야기했던 현행 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정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향 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이기훈씨는 "최근 사태로 불거진 여러가지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규칙 등을 제도와, 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해진 오디션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22일 공식 데뷔 광주시향 김영언 부지휘자

# "시민과 상견례 흥겨운 곡 골랐죠"

광주시향교향악단이 오는 22일(오후 7시30분) 광주 문화재단 대극장) 2013년 첫 공연을 갖는다. 이번 무대는 지난해 오디션을 통해 채용된 김영언(44) 상임 부지휘자가 광주 시민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다.

단원들과의 갈등으로 상임지휘자였던 크리스티안 루드비히가 재계약에 포기, 올 한해는 당분간 김씨를 중심으로 교향악단을 꾸려가야하는 터라 김씨의 어깨는 여느 부지휘자보다 무겁다.

"지휘자가 하는 일이 단원들과 연습하고 좋은 연주하는 건데 최근 시립예술단체를 둘러싸고 여러 일들이 있어 신경써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네요. 어렵게도 최근 연주가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무엇보다 필요한 건 연주의 질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조금씩 실력을 키워갈 계획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조화와 화합이 중요하죠. 시와 노조가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22일 연주회 레퍼토리는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과 '교향곡 7번',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협연 임효선 경희대 교수).

"올해 첫 연주회 화려하고 신나는 음악으로 레퍼토리를 선정했어요. 최근 몇년간 광주시향이 의외로 베

토벤 곡을 연주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 연주하는 교향곡 7번은 많이 알려져 관객들이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흐마니노프 곡에도 유명 멜로디가 있어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가장 애착이 가는 작곡가로 브람스를 꼽았다. 이번에 연주하는 베토벤도 그가 좋아하는 작곡가중 한명이다.

"올 한해 연주 일정과 레퍼토리를 확정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디. 협연자와 객원지휘자를 섭외하는 것도 바쁘구요. 우선은 제가 소극장에서 모차르트 '교향곡 35번'과 현대음악가 코플랜드의 '클라리넷협주곡'을 무대에 올립니다. 협연자는 서울시향 수석을 거친 채재일씨예요. 또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최희준씨도 3월 연주회 객원지휘자로 섭외해 두었어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한 김씨는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로 유학을 떠난 후 지휘로 전공을 바꿨다. 귀국 이듬해인 2006년 탐프양상블(통영 국제음악제 상주오케스트라)과 부천시향의 지휘를 맡으며 국내 무대에 데뷔했다. 부천시향과는 탈러, 브루크너 시리즈도 함께했다.

김씨의 이력 중 독특한 게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테헤란랩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고 있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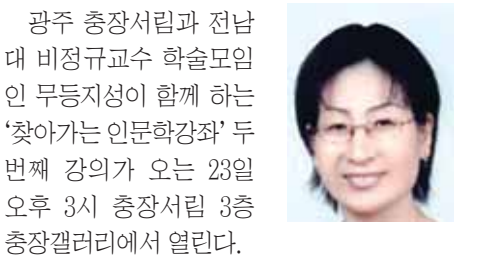


"민간 오케스트라를 꾸준히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서 운영하는 건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지난 2005년부터 인연을 맺고 있는데 단원들이 음악을 제대로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실력들도 대단해요. 음악을 그냥 귀로 듣는 것하고 실제로 해 보는 것 하고는 많이 달라요. 단원들의 가족, 지인들이 음악회에 다녀가고 그러면서 클래식 지면 확대가 되는 거죠."

김씨는 부부 음악인으로 부천시향교향악단 2바이올린 수석 한혜리씨가 부인이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총장서림 두번째 '인문학강좌'

### 명혜영씨 강의... 23일 총장갤러리



광주 총장서림과 전남대 비정규교수 학술모임인 무등지성이 함께 하는 '찾아가는 인문학강좌' 두 번째 강의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총장서림 3층 총장갤러리에서 열린다.

오는 23일에는 명혜영(사진)씨가 '육체라는 필터를 통해 언어를 획득하다-아마다 에이미의 '베타타임아이스'로 보는 사랑'을 주제로 인문학을 이야기한다.

이날 강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한 '지역서점 문화활동 운영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총장서림이 무등지성과 연계해 마련한 것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구현에 초점을 둔다. 오는 3월23일 열리는 세 번째 강좌에서는 이현주씨가 '소포클레스 비극의 이해-법과 자유의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네 번째 강좌는 4월27일 진행되며 심옥숙씨가 '카프카의 사랑과 상처 그리고 외로움'을 주제로 강의한다. 6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강의를 이어간다.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062-511-0903. /박성천기자skypark@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525-4835 | 송정역 941-3278

**영주 부석사 선비촌 기차여행**

**출발일**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

**여행비** 68,000원

**여행코스**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

**특전** 영주시에서 인삼비누 세트 증정(15,000원 상당)

**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차여행**

**출발일**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

**여행비** 37,000원

**여행코스**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황산공원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

**주류서비스**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음력생일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음력생일상): 29,000원

**Be natural Be delicious**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